

# 예루살렘 입성

스가랴 9:9-13, 마가복음 11:12-25

최정웅 목사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할렐루야!

온 나라가 연일 보도되는 문제 때문에 혼란에 빠졌다. 어제는 권사님한테 사도행전 13장이라고 했더니, ‘그러게 말이에요, 전술했어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하더라. 지금 정부를 지지하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과 상관없이, 온 백성이 참담한 심정에 빠져 있다. 이 안타까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하던 사무엘의 응답을 받아야 하겠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참된 지도자가 없기 때문일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그러면 다른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는가? 그럴 줄 알고 국민들이 선거를 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뽑지만, 사실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성경만이 그 비밀을 밝히고 있다.

첫째, 어떤 지도자도 복음이 없으면, 우리 권사님이 말한 대로,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16장의 점술, 19장의 우상을 벗어날 수가 없다. 정치와 권력을 잡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단이 세상 신이요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둘째로, 어떤 지도자도 복음이 없으면, 자기가 아무리 목표를 잘 세워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일 수밖에 없다. 나름대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잘 해보려고 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목표가 아니겠는가. 셋째로, 결국 어떤 지도자도, 나라와 백성에게 오는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의 멸망을 막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참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다. 유투브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보니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를 잃은 대통령의 딸이, 택시를 타고 광나루 옆에 있는 신학교에 왔다고 한다. 그때 신학교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그를 어떻게 대했겠는가. 차를 돌려싸고, 독재자의 딸이 여기에 왜 왔느냐 하는 날선 비난을 했다고 한다. 그분이 참담한 자기의 현실을 두고 어디에 가면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해서 거기까지 갔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겠는가. 세상은 전부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사역을 바라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깨닫고 찾고 결단하게 되는 축복의 날,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란다.

## 1. 예루살렘 입성 후 주님이 하신 일과 그 의미

(1) 첫째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 살펴보자.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다.

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모든 것을 둘러보신 주님은, 성 밖 베다니로 가셔서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유숙하셨다. 다음 날 월요일에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시장기가 있으셔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무엇을 먹을 것이 없나 하고 나무를 살피다가 무화과나무를 보셨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다.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가 아니다. 건기와 우기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24개월 내내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니다. 우기 때는 무화과 열매가 아직 열리지 않는다. 그런데 주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않도록 저주하셨다. 본문을 보면, 열매가 나지 않는 계절이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몰라서 그러셨겠는가. 그것은 무화과나무를 미워하셔서 하신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② 두 번째로 15절에서 19절까지를 보니까, 이번에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시면서, 책쪽으로 몰아내셨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듦’이라고 하시면서 꾸짖으셨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하면 안 되는가? 우리도 전도자료도 팔고, 한 번씩 사과도 팔고, 바자회도 하고 그러지 않나? 이때도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현금을 하려고 하면 환전을 해야 한다. 성전에서 쓰는 돈이 다르니까. 제물도 마찬가지다. 저 멀리에서 오는데, 양이나 염소나 소를 끌고 올 수 없으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사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장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쫓아내시고 꾸짖으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여기에 영적인 큰 의미가 숨겨져 있다.

(2)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지금 이스라엘이 자신의 천명, 소명, 사명을 완전히 놓쳐 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열매 때문에 화가 나서서 저주하신 게 아니다. 환전, 제물 구입 같은 것 자체를 뒤라고 지탄하신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였다.

① 무화과나무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는 세계복음화라는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셔서, 그 열매를 기대하시고 세우신 것인데, 이스라엘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복음을 다 놓치고, 세계복음화와는 전혀 상관없는 선민사상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우리만 선민이고,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만 구원하시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것은 다 이방인이나 구원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목적,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너는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다. 아브라함의 족속만 구원한 게 아니었다. ‘너희를 구원한 것은 너희를 통해서 언약을 만민에게 전파하여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 이것을 모르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가치를 잃어버렸으니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밧하게 되고 쓸데없어져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②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말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뜰을 막아놓고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만민이 와서 복음을 받고 복음을 누리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 성전을 다른 데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성전은 이렇게 되어 있다. 정문을 들어서면 거기가 이방인의 뜰이다.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한 번 더 들어가면 그곳은 유대 여자들을 위한 뜰이다. 하나 더 들어가면 유대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다. 그리고 성전이 있다. 그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금 우리 예배당의 강단과 회중석이 분리된 것처럼, 성소와 분리되어 있던 공간이 지성소다. 거기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장사를 하고 환전하는 것을 성전 밖 밑에서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거기에서 하면 독점을 못 한다. 경쟁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제사장, 성전 관리인들과 짜고 점점 가까이 와서 장사를 하는데, 성전 안까지 와서 장사를 하게 된 것이다. 그것을 성전 안 이방인의 뜰에서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돈 버는 것만 생각하고,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천명, 소명, 사명을 놓쳐버린 이스라엘은 이방인이 하나님께 오는 길을 막아버린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캠프를 할 때도, ‘이 사람은 괜찮고 저 사람은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 이번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우리에게 붙여 주십시오. 구원얻을 자, 제자를 붙여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깨달을 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성경 속 전도자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나가야 한다. 미리 저 사람은 안 될거야 하고 나가면 안 된다.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를 꼭 붙잡아야 하겠다. 반드시 발견하는 축복 있기를 바란다.

## 2.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천명, 소명, 사명의 내용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회복해야 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의 내용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자.

(1) 첫째로 우리에게 주신 천명(天命)이 말씀 속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회복시키시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다. 그 모습을 보니까 스가랴에서 약속하신 그대로였다. 구약 본문에 기록된 그대로 겸손한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계신다. 이것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다.

①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먼저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 되시도록 주인을 바뀌어야 한다. 주님을 영접했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지만, 그리스도가 손님이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귀한 손님이어서도 안 된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 갈라디아서 2:20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요한복음 2:1-11에, 혼인잔치 집에 예수님이 가셔서 손님으로 있을 때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가 종들을 불러서 예수님에게 불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종은 주인의 말을 그대로 듣게 되어 있다. 지금 잔치가 파장이 되어 가는데 포도주가 모자라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종들을 불러서,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채우라’고 했다. 종들은 영문도 모르고 주인이 하라고 하니가 명령대로 했다. 그렇게 다 물을 채웠더니,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주었더니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 일을 했던 종들은 알았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역사

가 일어난다. 악령이 주인되어 버리면 지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 버린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면 세상은 올바르게 다스려지고 통치되며 평화와 자유가 오게 된다.

②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의 주인 되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가정과 후대에, 교회에, 자신에 대한 모든 불신앙을 버려라. 베드로전서 5:7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다. 빌립보서 4:6-7에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면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시기 때문이다.

이번에 어느 교회에서 제직훈련을 인도해 달라고 해서 다녀왔다. 말씀을 하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사모님과 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모님 말씀이, '우리 교회가 이번에 아주 중요한 것을 놓쳤다' 하시는 것이다. 뭘 놓쳤느냐 했더니, 교회가 하나 나왔다고 한다. 1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인데, 당신들의 교회와 바꾸기로 한 것을, 한 분이 계산을 자꾸 두드리더라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가져가 버렸다고 한다. 그게 너무 아깝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모님이 이야기하셨다. 그분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닌데 계산을 하다가, 그분 직업이 뭐냐 했더니 세무사라고 했다. (웃음) 30년 동안 그 일을 했으니 정확하게 하려고, 혹시 어려움이 없겠느냐 해서 그랬다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일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맞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계산기 두드리는 동안 다 놓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도망가고 그러지 않나. 나도 그런 사람을 봤다. 그렇게 해서서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글쎄, 여러분이 뭘 염려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말이다. 사랑의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 교회가 너무 좁아서 새로 성전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2천 평 땅을 사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50억 원이 부족했다고 한다. 그래서 새벽에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하고, 목사님은 올라와서 기도했다고 한다. 그런데 아홉시 정도 되어서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다. 자기는 이 교회 교인이 아닌데, 새벽기도 때만 오는 분이라고 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헌금을 하고 싶다고 봉투를 내미는 것이다. 그래서 축복기도를 해드리고, 한 백만 원이나 들었을까 해서 열어보았더니, 50억 원이 들었더라는 것이다. 놀라서 나가 보니 이미 그분은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 없었다고 했다. 우리 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린이들과 같이 주일에 합숙을 하고 아침을 같이 먹는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교회에도 새벽기도만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먹여 달라고 한우를 몇 근 보내 주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자랑을 하던데, 나한테는 하나도 안 주고 (웃음) 잘 했다고 했다. 새벽기도 때 한 번 지나가면서 했던 말을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는데 이분은 들었던 것이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는 간절히 이야기했다. 자기 몫만 하면 된다. 자기 할 만큼만 하면 된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느 정도 사는 위치인지 스스로 알지 않나. 제일 못 사는 것 같다 싶으면 그 정도로 하면 되고, 중간쯤 산다 하면 중간쯤 하면 되고, 제일 잘 산다 싶으면 많이 드리면 될 것인가. 아니, 방해만이라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방해꾼은 되면 안 된다.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란다. 믿음으로 살라. 한 번이라도 믿음으로 뭘 해 보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믿고 해 보라. 다 내 계산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했다.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300명 용사 나오면 된다. 300명이 천만 원씩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빛도 없어져 버린다. 70명 비밀결사대가 나오면 넘치게 된다. 그러면 우리교회 건물 리모델링까지 해서 헌당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무엇을 생각할 때 당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 좁생이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빈대 쿡구멍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항상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함을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 허영을 부려서도 안 된다. 그것은 거짓이니까.

③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너무 엉터리로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않다. 백성을 어렵게 만들고 지도자를 어렵게 만들어서 결국 다 함께 망하게 만든다. 쳐다보는 눈을 보니까 귀신들린 여자가 맞구나 싶었다. 눈이 섬뜩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구나 싶다. 여러분이 있는 불신자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선포하시기 바란다.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믿고 누리시기 바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와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으면, 믿고 있으면 저절로 현장의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마태복음 12:28의 말씀대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응답을, 불신자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축복한다. 기회만 주어지면 딴 주머니를 차고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신다. '저는 주지만 하면 잘 할겁니다' 하지만, 주지만 하면 딴 것 할 것인데 어떻게 믿나. 그래서 하나님은 아깝 이후로는 믿음을 봐 가면서, 하는 것을 봐 가면서 축복하신다. 지금도 축복하실 사람을 찾고 계신다. 참 헌신할 사람이 누구일지 찾고 계신다. 헌신한 사람을 만나서 포럼을 해 보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셨습니다. 넘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감사의 달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다.

(2) 그러면서 할 것이 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기도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며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조금만 기도하면 반드시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있다고 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보내셨다. 또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다. 기도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한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召命)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다. 부르실 때 그것을 감당할 힘도 주신 것이다.

(3)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使命)이 무엇인가? 만민을 위한 성전회복 운동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우리 교회는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누가 기도하러 오면 친절하게 대하라. 왜 왔냐 하고 도둑 모는 식으로 하지 말고 '여기가 기도 장소가 괜찮습니다. 사용하십시오' 그래야 한다. 옆의 교회 목사님을 만났더니, 앞으로도 주자장 필요하시면 언제든 쓰시라고 하더라. 그 말만으로도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만민을 살리는 센터가 되어야 한다. हे투 성전은 유대인들만 모이는 선민사상의 센터가 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필요없게 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다. 하나님의 관심은 만민을 위해 복음을 전할 마가다락방에 집중되어 있었다. 우리가 만민을 위한 성전운동, 모든 지역을 위한 지교회운동의 응답을 모두 누리게 되기를 축원한다.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담고, 이것을 위한 교회운동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믿고 완전히 승리하는 이번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것 하고 남으면 주님께 드릴게요." 그런데 그 마음을 주님이 알고 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게 내 사업을 그렇게 드리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알고 계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업을 해라. 믿음으로 직장생활을 해라. 그 옆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사람이 없었는가 싶다. 그 가족이 안 낀 데가 없다고 한다. 사돈의 팔촌까지 모든 분야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 청와대 뿐만이 아니고, 말 안 듣는 기업의 부사장까지 바꿔 버렸다고 한다. 사법부, 업계에까지 그 손길이 뻗어 있었다고 한다. 그런 교제를 사십 년 동안 계속 해 오다가 터졌다고 하지 않나.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말씀을 마치자. 천명, 소명, 사명을 놓치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은 그냥 저주받은 게 아니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망해 버렸다. 본인 이야기 아닌가. 내가 이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싶다고. 그런데 아직도 뭘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한 사람도 그에게 복음을 이야기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양심의 가책이 된다.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만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한다. 무속인이 나라를 뒤흔드는데 교회는 싸움만 하고 있었다. 우리는 반드시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아야 하겠다.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누리는 사도행전 1:1이 천명이라면, 기도로 능력을 누리는 사도행전 1:3이 소명이다. 만민을 살리는 사도행전 1:8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사랑받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와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두고, 접미기만 보지 말고 진짜 문제를 보게 되기를 축복한다. 그러면서, 진짜 문제를 해결할 참된 해답을 전달하는 캠프에 헌신하시기 바란다. 이것이 우리가 나라를 살리는 최고의 애국이다. 주님이 가르치신대로, 우리 교회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부름을 받았다. 정말 나라를 살리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복헌을 살리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다민족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이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인 줄 믿는다. 한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반기 캠프를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는 축복의 한 달 살게 되기를 축원한다.

"하나님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천명을 깨닫게 하시며, 소명을 듣게 하시고, 사명을 깨닫고 우리의 자리에서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나의 갈 길을 제대로 가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나의 할 일을 제대로 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며, 주님이 내 앞에서 행하심을 믿고 걱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목표를 위하여 거룩한 생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